

월드컵은 '감독들의 무덤'

16강 탈락 "내탓이요"...일본·스페인·이탈리아·이란 등 줄줄이 사의

브라질 월드컵이 감독들의 무덤이 되고 있다. 16강 진출팀이 가려지면서 감독들의 운명도 갈리고 있다. 벌써 네명의 감독이 지휘봉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사의를 밝힌 감독은 일본 축구대표팀의 알베르토 자케로니 감독이다. 이탈리아 출신인 자케로니 감독은 26일(한국시각) "브라질 월드컵 전략·전술을 내가 결정했다. 성적 부진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 25일 열린 조별리그 C조 마지막 경기에서 콜롬비아에 1-4로 완패, 1무2패(승점 1)로 이번 대회를 마감했다. 2010년 일본 대표팀 사령탑에 오른 자

케로니는 2011년 아시안컵에서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고 축구 강국들과의 A매치에서 인상적인 경기를 펼쳤지만 월드컵에서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탈리아 대표팀의 체사레 프란델리 감독도 팀을 떠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루과이에 0-1로 패해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뒤 사의를 표명했다.

잔카를로 아베테 이탈리아 축구협회장도 16강 진출에 실패한 직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아베테 회장은 "대회 전부터 지난 대회에 이어 이탈리아가 또 16강에 진출하지 못하면 물러나겠다고 결심했다"며 "이제 우리에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란을 16강에 올려놓지 못한 카를로스 케이로스 감독이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케이로스 감독은 26일 사우바도르의 폰치노바 경기장에서 열린 F조 조별리그 3차전에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 1-3으로 패배한 뒤 "계약 연장에 관해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며 "떠나겠다"고 밝혔다.

케이로스 감독은 "이란을 위해 일하는 것은 큰 영광이었고, 나는 이 나라와 사랑에 빠졌다"면서 "그러나 짝사랑만으로 결혼 생활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



일본 자케로니 감독, 스페인 델 보스케 감독, 이탈리아 프란델리 감독, 이란 케이로스 감독

명했다.

같은 날 스위스에 0-3으로 패한 온두라스의 루이스 페르난도 수아레스 감독도 지휘봉을 내려놨다.

수아레스 감독은 "계약 기간과는 상관 없는 문제다. 스스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56년 만에 월드컵 본선 첫 라운드에서 탈락한 '축구 중가' 잉글랜드의 로이 호지슨(67) 감독이 중도 사퇴 없이 2016년

유럽선수권대회(유로 2016)까지 팀을 이끌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AFP통신 등 외신은 호지슨 감독이 26일 ("대표팀을) 떠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호지슨 감독은 2012년 5월부터 4년 계약을 맺고 잉글랜드를 지휘하고 있으나, 잉글랜드가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면서 비판에 직면했다.

그러나 그는 "잉글랜드축구협회(FA)

가 내가 계속 이 자리에 있기를 바라는 점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나는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기에 계속 이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FA가 진심으로 나를 원하고 선수들도 그렇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계속 할 것"이라며 "팀을 유로 2016까지 이끌고 좋은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정기자 jwpark@연합뉴스



응원 월드컵 세계 각국의 미녀들이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 브라질에서 자신이 응원하는 국가의 승리를 기원하며 이색적인 복장으로 열린 응원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월드컵에 관한 '이상한 진실'

인도네시아 국민들 월드컵에 가장 열광 한국은 세계 5위

브라질 월드컵 축구대회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세계에서 이 대회에 가장 뜨거운 관심을 보내는 나라는 어디일까.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26일 인터넷판에 '월드컵에 관한 5가지 이상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월드컵 축구대회에 관해 일반 팬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을 전달했다.

이 가운데 '월드컵에 가장 열광하는 국민의 비율이 높은 나라' 항목이 있는데 여기서 인도네시아가 61.3%로 단연 1위를 차지했다. 인도네시아는 이번 브라질 월드컵 본선에 오르지 못했지만 워낙 축구에 대한 인기가 높아 미국 여론조사 기관인 '스포츠크스트'가 벌인 설문에서 전체 국민의 61.3%가 '월드컵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답했다.

실제로 25일 브라질 상파울루 인근 도시 모지다스쿠루지스에 마련된 벵기에 훈련 캠프에는 인도네시아 기자 2명이 취재에 나서기도 했다. 이들은 "인도네시아에서 약 20명의 기자가 취재를 위해 브라질을 찾았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에 이어서는 이번 대회 16강에 진출한 멕시코가 57.9%로 2위였고 인도(53.1%), 아랍에미리트(50.3%) 순이었다. 한국은 45.1%로 이들 나라 다음인 5위에 올랐다. 이는 '축구의 나라'이자 개최국인 브라질(43.3%)보다 높은 수치다. 조사 대상 21개 나라 가운데 미국이 11%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타임은 또 인구 수에 비해 구경을 통한 '월드컵' 검색을 가장 많이 한 나라로는 솔로몬제도 1위에 올랐고 2위가 바누아투, 3위는 라이베리아 순으로 나왔다고 전했다.

이밖에 세계적인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포르투갈)의 인기가 높다고 하지만 모 델 겸 배우 김 카다시안(미국)에 미치지 못한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연합뉴스

브라질 축구팬, 아르헨티나 팬에 총격...태국 경찰 월드컵 도박 혐의 1000명 체포

■ 이모저모

○...브라질 축구팬이 아르헨티나 축구팬과 말다툼을 벌이다 총격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다.

25일(현지시각)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사건은 이날 새벽 남부 포르투알레그리시 시가지 바이사 지역에서 브라질인과 아르헨티나인이 축구를 놓고 논쟁을 벌이다 일어났다.

경찰은 브라질인이 총격을 가해 아르헨티나인이 다리에 총상을 입었으며 다행히 중상은 아니라고 말했다. 총격을 가한 브라질인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달아났다.

이 사건은 포르투알레그리시 바이사하우 경기장에서 열리는 F조 조별리그 아르헨티나-나이지리아 경기를 앞두고 일어났다. 포르투알레그리시에는 이날 아르헨티나 축구팬 10만여 명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미 축구의 양대 산맥을 이루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축구팬들은 월드컵 개막 이후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태국 경찰은 월드컵 경기와 관련해 불법 도박을 벌인 혐의자 1000여 명을 체포했다.

경찰은 "월드컵이 시작되고 나서 경기를 놓고 불법 도박을 벌인 1023명을 체포했다"며 이들 중에는 외국인 4명이 포함돼 있다고 25일 밝혔다. 체포된 외국인으로는 마카오, 홍콩, 말레이시아 출신으로, 주로 도박업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에서는 정부 발행 복권과 경마 외에는 도박이 법으로 금지돼 있으나, 월드컵 경기 때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도박이 기승을 부린다.

지난 2010년 월드컵 때는 3800여 명이 불법 도박으로 체포됐으며, 1억3000만 바트(약 40억원)가

량의 도박 자금이 압수됐다.

○...월드컵 개최국이자 우승후보 1순위로 꼽히는 브라질이 이번 대회에서 가장 많이 '부상인'이 되는 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26일(한국시각) "월드컵 축구를 보며 가장 지루한 시간은 분명히 부상이 아닌데도 누워 있는 선수 때문에 경기가 중단된 때"라며 "분석 결과 브라질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라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3일 개막전부터 23일까지 열린 브라질 월드컵 조별예선 1·2차전 32경기를 분석해 '아프지 않은 선수가 몸부림치느라 허비한 시간'을 계산했다. 이 신문은 선수가 그라운드에서 쓰러지고 나서 일어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허비한 시간'으로 봤다. 부상으로 교체되거나 치료를 받은 선수는 제외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32경기에서 302차례 부상이 아님에도 쓰러지는 선수가 나왔으며 총 132분을 허비했다"고 밝혔다.

'부상 없이' 가장 많이 넘어진 팀은 브라질이다.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낸 팀은 온두라스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브라질이 2경기에서 총 17차례 넘어져 3분 18초를 허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온두라스는 15번 넘어져 총 7분 40초를 보냈는데, 이 중 5분 10초가 (16일)프랑스와 0-0 상황에서 나온 '가짜 부상'이다"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월드컵 스코어 보드

에콰도르	0:0	프랑스
온두라스	0:3	스위스
보스니아	3:1	이란
나이지리아	2:3	아르헨티나